

2026.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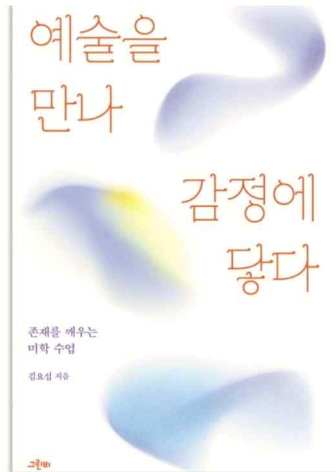
9월의 책

초·중·고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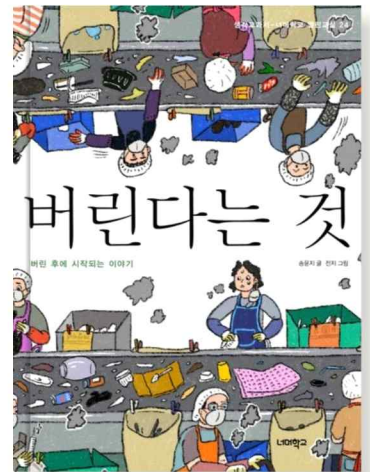
**이런 건 왜 또
기막히게 생각나서**
배순탁 글

고
등



예술을 만나 감정에 닿다
김요섭 지음

중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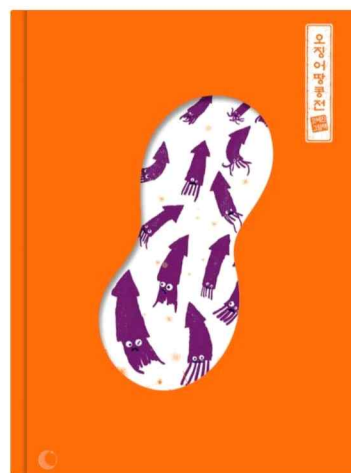
버린다는 것
송윤지 글, 전지 그림

초
등



**저 같은 아이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김주현 글, 최미란 그림

초
등



오징어땅콩전
고혜진 글·그림

이 추천도서 요약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사서들로 구성된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이달의 책〉 TF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런 건 왜 또 기막히게 생각나서

배순탁 글

어라운드 / 2026 / 280쪽

음악은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어떻게든 바꾸려는
사람에게 아주 작지만 잊히지 않은 영향 정도는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 구절, 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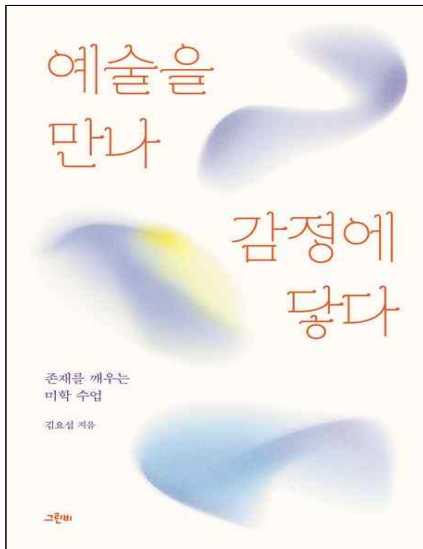
인생이라는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숨 가쁜 운동을 할 때마다 필수인, 기분이 울적할 때 특효인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펼쳐 들 수 있는 책이 있다. 어쩌다 평론가가 된 음악 덕후로 자신을 소개한 저자의 산문집이다. 취미, 운동, 가족처럼 익숙한 서른 가지 키워드로 빚어낸 개성과 감성 넘치는 글에 꼭 맞춘 플레이리스트가 흥미를 끈다.

익숙한 취향은 잠시 내려놓아도 좋다. 낯선 것들로 직진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준비했다면 목차 바로 다음 장을 먼저 넘겨보자. 생생한 음악으로 이끄는 QR코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순서에 상관없이 마음이 가는 단락부터 읽기 시작하면 된다. ‘일상과 생활, 감정과 기억, 취향과 예술’이라는 구분 아래 무엇을 선택해도 은근히 잘난 체가 느껴지지만 입지 않은 필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를 들으며 마신 믹스커피는 어른이 되고 싶었던 시절의 열망을 일깨운다. 에픽하이의 ‘막을 올리며’에 맞추어 속도를 올리며 자전거 페달을 밟는 날도 있다. 친숙한 선율로 시작하는 ‘브람스의 교향곡 3번 3악장’은 후회만 남은 아버지와 추억으로 마음을 흔든다. 음악과 삶이 서로 스며드는 순간이다.

삶에는 예기치 못한 이별,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사연,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좌절과 절망이 가득하다. 하지만 우리를 일으키고, 살아 나가게 만드는 힘은 작고 사소한 데서 나온다. 산책길의 소소한 풍경, 잘 깎은 연필,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어울리는 음악 같은 것들 말이다. 인생이 음악이라면 그 의미는 종결이 아닌 연주의 과정에 있다. 연주가 끝나기 전에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그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예술을 만나 감정에 닿다

김요섭 지음

그린비 / 2026 / 189쪽

이 책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아름다움 속에서, 떨림의 자리를 더듬었을 뿐입니다.

책 속 구절, 1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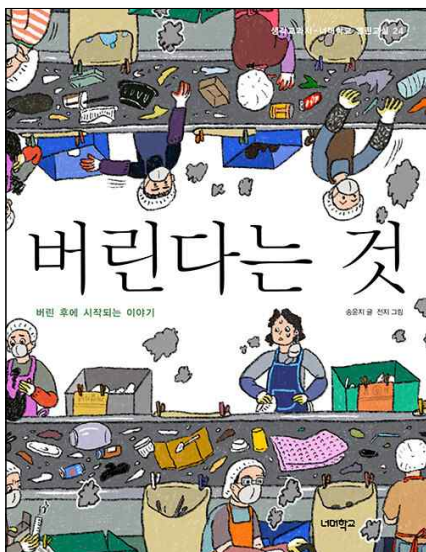
마음의 떨림을 따라 진짜 나를 만난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한 감정을 느낀다. 기쁨과 슬픔처럼 익숙한 기분도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낯선 느낌도 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흔든다. 감정은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떨림’이고 ‘나와 세계가 마주하는 방식’이다. 작가는 감정을 일상의 단순한 느낌과 기분에서 발전시켜 존재의 영역에서 새롭게 풀어쓴다.

책은 민지와 선생님의 대화에서 출발해 15가지 감정의 풍경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언어의 바깥에 선 감정의 흔적을 영화 속 장면과 예술 작품의 미학적인 묘사로 어루만진다. 영화 「세계의 주인」에서는 수치심을, 「조커」에서는 분노에 대해 고찰한다. 샤갈의 그림에서는 기쁨을, 자코메티의 조각에서는 용기를 읽어내며 우리가 느낀 떨림이 어떻게 존재를 깨우는 예술이 되는지를 섬세하게 비추어 보인다.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으로 분류될 것 같은 감정도 서로 양가적인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테면 분노는 파괴로 향할 수도 있지만 관계와 돌봄을 선택하는 생명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여러 감정을 찬찬히 곱씹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존재와 세계의 틈에서 울림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캉, 니체, 레비나스와 같은 철학자의 개념과 문장을 인용하여 인간 심리에 대한 사유의 영토를 넓힌다.

감정은 영원하지 않고, 진동하고 공명하며 사라진다. 하지만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긴다. 불편하고 낯선 떨림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잠시 거기 머물러 보기를 권한다.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타인과 세계를 새롭게 마주하는 감각을 얻게 된다. 그렇게 열린 존재가 되면 그 끝에선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버린다는 것

송윤지 글, 전지 그림
너머학교 / 2026 / 120쪽

각자가 작은 분해자가 되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책 속 구절, 106쪽

버리는 순간 시작되는 기나긴 여정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버린다. 음료수 하나를 마셔도 어김없이 남는 페트병, 과자 봉지를 뜯으면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지, 택배 상자를 열면 쏟아지는 완충재까지. 어제까지 사용했던 물건도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쓰레기’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눈앞에서 사라지면 없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버린 물건은 여전히 모양과 무게를 지닌 채 어딘가 남아 있다. 우리가 버린 것은 어디로, 누구에게로 향할까?

쓰레기는 새벽의 어둠을 가르는 수거차에 실려 도시의 가장자리로 향한다. 거대한 소각장이나 매립지, 재활용 선별장에서 누군가의 손을 거쳐 태워지고, 묻히고, 다시 분리된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때로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까지 건너간다. 이후 오랜 시간 썩지 않은 채 남아 유해한 물질을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결국 우리 곁에 돌아온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다. 불필요한 포장을 없앤 알맹상점, 텀블러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용기내’ 캠페인 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진 것을 잘 분해해 자원으로 이어주는 일 역시 중요하다. 지렁이와 버섯, 미생물 등 자연의 분해자가 생물학적 순환을 담당한다면 환경미화원과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는 흩어진 자원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하는 도시의 분해자다.

저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후 당연하게 누리던 편리함의 이면에 무엇이 가려져 있는지 끈질기게 질문한다. 이 책은 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따라가며 ‘버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나아가 우리 역시 지구의 일부임을 깨닫고, 무엇을 남기고 비울지 고민하는 과정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저 같은 아이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김주현 글, 최미란 그림

만만한책방 / 2026 / 143쪽

고맙습니다. ... 공부가 이렇게
제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기르는 일이라는 걸
알게 해 주셔서요.

책 속 구절, 1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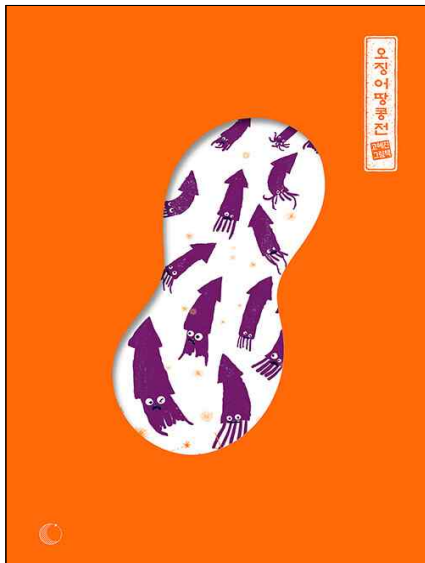
어찌자고 공부는 시작해서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금지된 학문인 서학을 공부하여 강진에 유배된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유배지에서 먼저 관심을 보인 이는 열다섯 살 산석이었다. 술을 즐기는 아전의 자식으로 태어나 늘 배움에 목말랐지만, 제자로 받아 달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소년에게 다산이 선뜻 손을 내민다.

자신은 ‘둔하고, 앞뒤가 껍 막히고, 답답한 아이’라며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산석에게 다산은 다정하게 답한다. “너 같은 아이라야 공부할 수 있다.” 빨리 외우고 글을 잘 짓는 재주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배우려는 마음이라고. 자신의 재능만 믿고 들뜨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더 많이, 더 빨리, 보다 천천히 깊게 가자. 산석은 배우는 기쁨을 조금씩 키워가며 성장해 간다.

밭일과 논일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잇던 산석은 친구들이 과거를 보러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린다. 공부해서 무엇 하나 싶은 제자에게 다산은 그 참된 의미를 다시 일깨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된 산석을 다산은 꼭 안아 준다. 이후 강진을 떠나는 다산과 남겨진 산석은 서로를 깊이 마음에 품은 채 각자 삶의 길을 걸어간다.

이 책은 다산과 산석의 시선을 오가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겹고 아름다운 문장 속에는 평생 이어진 스승과 제자의 끈끈한 믿음이 담겨 있다. 공부의 목적과 방법, 삶과 하나 되는 배움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전하며, 산석이 일흔에 이르러서까지 책 읽기와 글쓰기를 놓지 않고 스승을 그리는 모습이 깊은 울림을 준다. 사회적 성공만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참된 공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오징어땅콩전

고혜진 글·그림

달그림 / 2026 / 80쪽

아무도 몰랐다.

고작 과자 하나 때문에 오징어와 땅콩이

기나긴 전쟁을 하게 될 줄은 말이다.

책 속 구절, 3쪽

오징어 대 땅콩, 승자 없는 전쟁

고소한 땅콩과 쫄깃한 오징어는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환상의 궁합이다. 그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깊은 바닷속 오징어왕국과 항구에 있는 땅콩 나라.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평화롭게 지내던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기발한 발상에서 이 그림책은 시작된다.

언제부터인가 오징어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다. 조사를 나선 오징어는 어느 공장에서 땅콩과 오징어를 활용해 최고의 과자를 만들 수 있다는 신제품 개발 보고서를 발견한다. 이를 보고 사건의 원인이 땅콩 때문이라고 오해한다. 분노한 오징어들은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전쟁을 선포한다. 설부른 추측은 건잡을 수 없는 갈등의 시작이 된다.

오징어의 무차별 공격에 땅콩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약자에게는 약자만의 방법이 있는 법. 견과 동맹을 요청하고 각종 무기를 동원해 기습과 소금 투하로 맞선다. 양쪽의 피해가 날로 커져가는 와중에도 실종은 계속된다. 사실 범인은 따로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미 시작된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오징어 왕은 아무런 이득 없이 물러설 수는 없다며 고집을 부리고, 두 나라 사이에는 터질 듯한 긴장감이 흐른다.

주황색과 보라색의 대비, 익살스럽지만 강렬한 이미지, 작가의 내레이션을 어우러져 작품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오징어와 땅콩의 대립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떠올리게 한다. 싸움의 끝에 상처만 남은 이들과 어부지리로 뜻밖의 이익을 얻는 이들의 엇갈린 모습은 전쟁의 씁쓸함과 허무함을 반어적으로 드러낸다. 고소한 맛 뒤에 숨겨진 묵직한 메시지를 오징어땅콩을 먹으며 천천히 곱씹어보길 권한다.